

‘모던 상하이’를 포위하는 이주노동자 마을 - 『푸핑』을 통해 읽는 난민-인민의 삶, 공동체 문제

천진*

【목 차】

1. 상하이 노스텔지어를 균열 내는 푸핑의 감각
2. ‘모던 상하이’를 지탱하는 이주 노동의 삶
 - 1) 향촌의 파산과 도시로의 이주 노동
 - 2) 난민과 인민 사이: 도농 이주 노동의 역사기억
3. ‘판자촌’이란 장소
 - 1) 이주 노동자들의 공동체 마을(村)
 - 2) 자존감,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의 선순환
4. 나오며

【초록】

이 글은 상하이 노스텔지어 문화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못)보았는가”를 질문하는 문화 텍스트로 『푸핑』을 다루며, 이를 통해 모던 상하이 표상에 가려있는 20세기 상하이의 역사기억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시기 상하이의 다양한 이주노동의 삶과 그들의 작은 역사들을 따라 20세기 중국 현대사에서 생존으로서의 민생의 문제를 질문한다.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도시 이주노동의 난민화된 삶의 이야기들은, 안정된 삶의 리듬을 갖고자 하는 노동·생존의 욕망과, 장소에서 뿌리 뽑혀 난민과 인민 사이를 오가는 중국 현대사의 이주와 정착의 문제를 환기시킨다. 동시에 도시의 난민화한 삶들이 판자촌과 같은 위태로운 장소에서도 자신의 노동으로 자존감이 있는 삶을 구성하고 호혜적 윤리가 순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뿌

* 천진. 연세대학교 박사 (yuwaa@hanmail.net)

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난민화한 삶이지만 자존감과 연대의 감각이 살아있는 이주노동자의 마을 형상은 ‘모던 상하이’를 포위하는 20세기 상하이의 또 다른 모더니티일 수도 있다.

【키워드】 이주노동, 난민화, 난민-인민, 도농이원화, 판자촌, 빈민, 상하이 노스텔지어, 자존감, 호혜적 윤리의 순환, 역사기억

1. ‘상하이 노스텔지어’를 균열 내는 푸핑의 감각

“길을 걸으면 마치 수정궁을 걷는 듯 별 하나 없는데도 온통 반짝반짝 눈이 부시고” “모던한 남녀들”과 “쇼윈도에 비치는 화려한 옷들”¹⁾이 즐비한 상하이, 이것은 소설 『푸핑』의 주인공이 쑤베이(蘇北) 양저우에서 상경하여 처음 마주친 상하이 화이하이루(匯海路)의 모습이다. 낯설지 않은 이 풍경은 사실 상하이를 호명할 때 대중문화에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가장 익숙한 모던 상하이의 풍경이자 21세기 전후 상하이를 휘감고 있던 ‘올드 상하이 노스텔지어’의 대표적 시각 표상이기도 하다. 이 표상은 소비대중의 취미와 기호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리어우판이 『상하이 모던』에서 조계지에 만개한 상하이 도시문화의 모더니티를 중국적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 명명하며 재해석했던 것처럼,²⁾ 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휘황찬란한 역사”가 된 모던 상하이 풍경은 21세기 전후 국제대도시로 비약하(려)는 상하이를 휘감는다. 하지만 소설 『푸핑』은 전지구적 자본주의 운동 궤도에 안착하여 국제적인 상하이로 변신하려는 욕망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 거리감은 흥미롭다. 상하이의 다양한 장소기억을 다루고 있던 왕안이는 올드 상하이 노스텔지어는 “최신 유행일 뿐 상하이가 아니며” 나아가 “이 도시 속에 상하이가 없다”³⁾며 반복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달뜬 이 문화열에 균열을 내려는 것에 가깝다. 『푸핑』을 읽고 “사색에 잠기게 되었다”는 왕샤오밍은 “왜 이렇게 썼을까” 질문을 하며 왕안이의 이

1) “…… 就像走在水晶宫里似的, 没有一星土, 到处是亮闪闪的, 晃眼。…… 那些摩登的男女, …… 橱窗里华丽的衣物 …… 一上身就成怪物了。” 王安憶, 『富萍』, 上海文藝出版社, 2005, p.27. 왕안이 저, 김은희 역, 『푸핑』, 어문학사, 2014, pp.56-57.

2) 리어우판 저, 장동천 외역, 『새로운 중국 도시문화의 만개, 1930-1945』,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리어우판에 대한 밀도 있는 비판적 연구로 박자영의 『상하이의 낮과 밤 - 현대성의 문화와 일상, 대중문화』, 그린비, 2020의 1장 리어우판의 상하이 모더니티와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한 비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王安憶, 『尋根上海』, 『妹頭』, 南海出版公司, 2000, pp.198-199 (왕샤오밍 저, 김명희 외역,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 - 왕샤오밍 문화연구』, 문화과학사, p.48. 재인용)

불편함을 곱씹는다. 그리고 『푸핑』을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편찬한 올드 상하이 이야기와 거리를 두는” 정치적, 미학적 질문들이 모여들 수 있는 텍스트로 이해한다.⁴⁾ 옛 상하이 조계지가 아닌 문혁 직전 64-65년 상하이, 왕샤오밍은 『푸핑』의 시공간은 ‘소비의 도시에서 생산의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 “식민지의 유습과 사회주의의 시류가 힘을 겨루는” 사회주의개조를 통과한, “서유럽적이지도 않고 사회주의적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은” 1960년대 상하이를 소설세계의 중앙에 위치시킨다고 보았다.⁵⁾ 즉 소설 『푸핑』의 ‘사회사적 시야’는 당-국가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인민의 사회라기 보다는⁶⁾, 당-국가 거버넌스의 영향력의 끝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유동하는 ‘저층’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푸핑』이 한국에 번역된 이후, 소설의 도시 공간에 대한 분석⁷⁾에서 비판적 도시 문화연구에 이르기까지⁸⁾ 상하이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들이 이 소설에 모여들었다.

왕샤오밍이 곱씹어 보았던 왕안의 불편함, 즉 상하이 노스텔지어 붐과 거리를 두려는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확실히 소설의 주인공 푸핑은 상하이 노스텔지어의 시각적 표상이 불편하다. “별 하나 없는데도 반짝반짝한” 화이하이루는 “수정궁” 같지만, 푸핑은 이내 “서먹서먹한 거리감”에 쇼윈도의 전시물들이 “비현실적이고” 걸치면 “괴물로 변해버릴 것” 같다고 느낀다.⁹⁾ 이러한 푸핑의 감각은 흥미롭다. 빛으로 가득한 화이하이루는 상하이 모더니티의 대표적 시각 표상이지만, 풍경을 묘사하는데 사용했던 “수정궁”은 흥미롭게도 1851년 서구 모더니티의 위용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던 세계 최초 만국박람회의 별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구 모더니티를 가시화(과시화)하는 만국박람회 전시 공간 “수정궁”을 19세기 왕타오(王韜)는 “눈이 아찔하고 아득한” 현기증 속에서 “좀처럼 알아 볼 수 없는” 빛으로 경험했다.¹⁰⁾ 푸핑은 이와 달리 빛으로 가득한 화이하이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서먹

4) 왕샤오밍 저, 김명희 외역,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 - 왕샤오밍 문화연구』, pp.51-52.

5) 왕샤오밍 저, 김명희 외역,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 - 왕샤오밍 문화연구』, p.34.

6) 『文學評論』 2015年第6期の “社會史視野下的中國現當代問學” 筆談의 程凱, 薩支山, 何浩 등이 제기하는 내용으로 사회주의 시기 문학을 새롭게 분석하려는 이론적 시도이다.

7) 김은희, 「王安憶의『富萍』과 上海 移民者の 서사」, 『中國文學』, 第84輯, 2015. 손주연, 「여성의 시각에서 보는 상하이 도시공간 - 왕안이 소설 『푸핑』 읽기」,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23집, 2022.06. 김은희는 소설에 재현된 상하이 이주민 거주지의 위계적 양상을 분석했고, 손주연은 사회적 공간 문제로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자각과 주체성이 전개되는 상하이를 다룬다.

8) 노정은, 「왕안이 상하이 서사의 지점들 - 『장한가』에서 『푸핑』으로」, 『인문과학』, 104, 2015. 임춘성,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상하이 민족지(3) - 『푸핑』」, 『중국현대문학』, 72, 2015. 노정은은 상하이 자본질서의 위계화·배타성을 고려하며 왕안의 상하이 서사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푸핑』을 도시 하위주체에 주목한 서사 변화 지점으로 주목한다. 임춘성은 왕샤오밍 등 상하이 비판적 문화연구를 주목하고, 인류학 참여관찰자로 푸핑을 설정, 그녀의 결혼원정기를 따라 60년대 상하이를 분석한다.

9) 王安憶, 『富萍』, 上海文藝出版社, 2005, p27. 왕안이, 김은희 역, 『푸핑』, 어문학사, 2014, pp.56-57.

한 거리감”을 두고 빛의 거리 이면의 “노동과 밥벌이를 위한 삶”의 장소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장소를 찬찬히 ‘걸어 다니며’ “복잡한 역사” “파란만장한 곡절”을 지닌 사람들 사이로 ‘들어간다.’¹¹⁾ 푸핑의 ‘눈’은 상하이 모던 풍경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던한 빛의 풍경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지 않은(못한) 장소의 깊이를 감지하고 찾아가며 질문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은 서쪽 화이하이루에서 변두리 공업지대 판자촌(棚戶區) 자베이, 메이자차오에 이르는 일종의 상하이 로드무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감각은 “수정궁” 같은 빛에 사로잡혔으면서도 대상을 온전히 보았다고 자부하는 환각과 다르다. 푸핑은 “활달하고 영리해보이지 않은” “흐리멍덩해 보이는” 외모에 “어눌해” 보이지만, 사람과 사물의 세계에 “귀 기울여 잘 들으며” 자신이 느낀 인상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천천히 장소의 깊이를 느낀다. 코스모폴리탄한 조계지의 모던한 감각들이 오로지 시각적 표상들에만 예민하다면, 시각적인 것에만 사로잡히지 않는 푸핑은 얼핏 “무감각” 해보일지 모르나 천천히 장소의 깊이를 찾아가기 때문에 “결코 무감각하지 않다.”¹²⁾ 오히려 사람들이 “무엇을 못 보았는가”를 질문하는 셈이며, 이 감각은 장소의 깊이를 천천히 온몸으로 ‘감응’하는 것에 가깝다. 인간의 삶을 일종의 노드로 간주하고 대상화·정보화하는 태도와 달리, 오히려 푸핑은 생활의 중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밑바닥”으로 내려가 여기에서 저마다의 생이 처하고 있는 상태를 두텁게 느끼고 이해해 나간다.

『푸핑』의 상하이 로드무비를 이러한 감각으로 따라가 보면, 상하이는 단순한 ‘올드 상하이 노스텔지어’로 환원될 수가 없다. 왕샤오밍이 말한 “서유럽적이지도 않고 사회주의 규범도 아닌” 1960년대 상하이는 그렇기 때문에 장소의 깊이를 감응하는 푸핑의 감각을 통해 이해될 필요가 있다. 늘 그렇듯 외부자는 장소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실패하기 쉽지만, 대상을 이해할 때 선부른 인상에 머물지 않는 푸핑과 같은 태도는 몇 번이고 도전되고 축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시도의 하나로써 소설 『푸핑』의 1960년대 상하이 시공간을 난민상태를 견디며 뿌리내리고 정착하려는 노동들, 즉 이주-노동의 삶과 역사기억들이 퇴적된 깊이를 지닌 장소로 고려하고자 한다. 기존 『푸핑』의 분석들이 도시로 온 ‘이주민’, 그리고 저층의 ‘양상’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글은 기존 이주민 프레임에서 나아가 첫째, 향촌의 파산으로 인한 난민화한 삶과 이를 견디며 삶을 새롭게 꾸리려는 ‘노동’의 의미를 고려하여 소설 속 이주-노동의 문제를 고민해 본다. 둘

10) 王韜, 『漫遊隨錄』, 陳尚凡·任光亮·鍾叔河·喻岳衡 交點, 『走向世界叢書』6, 湖南人民出版社, 1981, p.99.

11) 王安憶, 『富萍』, 上海文藝出版社, 2005, pp.28-29. 왕안이, 『푸핑』, 어문학사, 2014, pp.57-59.

12) 王安憶, 『富萍』, 2005, pp.21-23. 왕안이, 김은희 역, 『푸핑』, 2014, pp.45-50.

째 이러한 이주-노동의 작은 역사들을 20세기 중국의 도농 사이의 이주와 정착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루고자 한다. 도농의 이주와 정착 역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주-노동’은 향촌의 파산, 난민화, 도시 빈민화 문제와 연관되고, 신중국 이후에는 ‘난민’에서 ‘인민’으로 이끄는 각종 민생 정책과 관련된다. 하지만 도농 사이에는 자신의 삶의 장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난민화한 삶들이 존재하며 ‘난민과 인민 사이’를 유동하는 기억들로 산포되어 있다. 푸핑의 상하이 로드무비에는 푸핑을 비롯한 장강 이북 쑤베이 출신의 다양한 이주노동의 삶이 마치 열전(列傳)처럼 얹혀 있는데, 한편 이는 도농(城鄉)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주와 정착의 삶의 기억들이자 중국 ‘백년의 급진’ 역사의 은닉대본이기도 하다.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삶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결국 ‘민생’의 문제라 한다면, 20세기 백년의 급진 속에서 ‘도농 사이’ 벌어진 이주와 정착은 ‘난민-인민’ 사이에서 유동하는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장소에서 뿌리 뽑히는/ 뽑힐 듯한(displaced)” 도시의 난민 상태에서 ‘집’ ‘가족’을 이루고 뿌리내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하고자 한다. 푸핑의 상하이 로드무비는 결국 메이자차오라는 판자촌의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과정이자, 동시에 푸핑이 결혼과 가족·고향의 의미를 질문하며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판자촌’이라는 장소는 단순히 난민 상태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소설은 난민 상태를 견디는 삶 속에서 ‘자존감’과 ‘호혜적 윤리’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러한 윤리가 선순환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소로 재현하고 있다. 푸핑은 친밀함, 공동체, 사회적인 것의 문제들을 익숙한 규범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의 의미를 질문하고 따져가면서 구성해 나가는데, 이는 일종의 윤리적인 것에 대한 질문과 성찰이라 할 수 있다. 푸핑의 감각을 따라 이러한 맥락들로 상하이의 백 년의 급진적 역사의를 가늠해 본다면 상하이 모던은 어떻게 드러날까. 장소의 풍부한 맥락과 역사적 깊이를 감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중국을 구성하는 삶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할 노력치 않은 작업이기도 하다.¹³⁾

13) 장소(place)는 사람과 분리된 빈 공간, 지리적 실체가 아니라 “누군가 존재하며” “단일하거나 동질적이지 않고 제각기 이름이 있는,” 즉 삶, 경험, 역사 등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복잡한 측면 자체이다(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35) 이 글은 “장소에 대해 깊이 배려하고 장소의 의미를 알고 존중하려는 마음의 태도”인 공감하는 내부자, 혹은 장소의 경험을 깊이 성찰하며 참된 장소 경험을 추구하는 외부자의 시선(에드워드 렐프, 위의 책, pp.124-125)의 태도로 『푸핑』의 장소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2. ‘모던 상하이’를 지탱하는 이주 노동의 삶

1) 향촌의 파산과 도시로의 이주노동

소설 『푸핑』의 마지막 장(20장)은 상하이 변두리 메이자차오 판자촌에 닥친 재난인 홍수로 인해 푸핑이 ‘피난’ 가는 이야기로 마무리 되고 있다. 시골에서 상경한 고아 푸핑이 화이하이루와 외숙이 사는 자베이 판자촌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꾸린 소박한 가족의 ‘집’이 홍수로 아슬아슬한 무너질 위기 상태가 된 것이다. 졸지에 도시의 난민이 되기 일보직전, 또 다른 판자촌 자베이에 사는 외숙의 가족들은 “집이 무너지고 나면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푸핑과 새로운 가족을 배에 태워 “수상운송대가 마련한” 임시대피소로 간다. 외숙의 “아이들이 배를 밀면서 몸을 물 위로 띄운 채 물 속에서 발차기로 물장난을 치며” 탈출하는 이들의 배를 밀 때, 배 위에서 푸핑은 “마치 두루마리 그림처럼 천천히 펼쳐지는”, “아무리 큰물이 저도 이 도시의 생활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강 언덕 땅 위에 굳건한 안전한 도시 상하이를 바라보게 된다.¹⁴⁾

온 천지가 물에 잠겨 집을 잃고 일업편주 같은 배에 몸을 의지한 난민들과 달리 강 언덕 위의 도시는 재난에도 안전했다. 소설의 표현에 따르면 “근대 공업의 규모와 구도에 맞추어 개척자들이 제일 먼저 깔았던 하수관”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었기” 때문이다.¹⁵⁾ 사실 조계지가 건설되고 공장이 들어서던 20세기 초 근대적 도시의 기초가 되었던 상하이의 하수관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베이, 메이자차오와 같은 판자촌 일대에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 즉 쑤베이를 비롯한 향촌에서 도시 상하이로 온 이주노동자들의 건설 노동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의 대오에는 저임금에 강도 높은 노동들--건축노동자만이 아니라 면방직공을 비롯한 산업노동자를 비롯하여 인력거꾼, 부두노동자, 쓰레기 운반공, 분노차 운반, 가사 도우미 등이 있다.¹⁶⁾ 이들의 삶은 근대적 도시 상하이를 만들고 지탱했지만, 푸핑의 집처럼 재난 상황에는 가장 무너지기 쉬운 상태에 놓인다. 이러한 이주노동의 역사기억은 소설의 첫 장인 「할머니」 편의 할머니의 이력 속에서 잠시 드러나고 있다.

14) 王安憶, 『富萍』, 2005, pp.205-206. 왕안이, 김은희 역, 「20장 홍수」, 『푸핑』, 어문학사, 2014, pp. 361-376.

15) 王安憶, 『富萍』, 2005, p.201. 왕안이, 김은희 역, 『푸핑』, 어문학사, 2014, p.366.

16) 熊月之, 「近代上海城市對於貧民的意義」, 『史林』, 2018年第2期, 2018.02.

“할머니는 상하이에서의 30년을 주로 서쪽 지구의 변화가인 화이하이로(匯海路)에서 보냈다. 그녀 역시 변화가의 주민과 마찬가지로 변두리 지역을 황량한 시골로 여겼다. 자베이(閘北)이나 푸뮈(普陀)같은 변두리 지역에는 사실 그녀의 고향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대부분 여러 해 동안 계속된 전쟁과 재난을 피해 쑤저우허(蘇州河)를 따라 배를 저어 상하이까지 흘러들어온 뱃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빈터를 찾아 샷자리를 맡아 전실 모양의 판잣집을 지어 살았고, 나중에는 공장으로 찾아들어 살길을 도모했다. 상하이의 산업노동자 가운데 적어도 절반이 그들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사람들과 전혀 오가는 법이 없었다. 그녀 역시 도시 한복판의 주민이라는 선입견을 지니고 있었으며, 화이하이로만이 상하이라 부를만하다 여겼다.(강조는 필자)”¹⁷⁾

변화한 화이하이루에 살고 있는 ‘할머니’ 역시 장강 이북 장쑤(江蘇) 북부지구 쑤베이(蘇北) 출신이지만, 할머니는 자신을 상하이 변두리 ‘자베이’ ‘푸뮈’에 사는 고향 사람들, 즉 쑤베이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과 구별 짓고 있다. 중일전쟁 이전 1930년대에 상하이 화이하이루에 보모 일을 시작한 할머니는 나름 상하이 서쪽 변화가에 자리를 잡은 30년대 1세대 이주노동자 중 하나이다.¹⁸⁾ 할머니는 자신이 훗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요량으로 고향의 일가에 도움도 주고 있고, 그래서 일가 중에서 양자처럼 손주를 들여 뒷바라지를 할 정도로 여력이 있는 나름 정착한 이주노동자이다. 고아가 된 푸핑이 양저우 작은 아버지 집에서 눈칫밥을 먹다 상하이 화이하이루로 상경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나름 안정되게 정착한 이주노동자 할머니가 손주 며느리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머니가 “전혀 오가지 않는” 변두리 지역 ‘자베이’ ‘푸뮈’는 어떠한가. 고향 쑤베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聚集)” 이 지역은 이른바 상하이의 “판자촌(棚戶區)”이다. “전쟁과 재난을 피해 쑤저우허를 따라”와 나름 “살길을 도모하는” 쑤베이 사람들인데, 화이하이루에 정착한 할머니는 “변화한 도시주민”들처럼 자신과 그들로 구분 짓고 있다. 하지만 상하이 변화한 중심지 사람들에게 쑤베이 사람들은 단순한 구별 짓기의 대상이 아니다. “江北人(쑤베이 출신)은 더럽다” “江北人은 하류다”처럼 편견과 멸시의 대상이자 ‘빈민’ ‘난민’의 상징이었다.¹⁹⁾ 쑤베이 사람들이 ‘난민’이 되

17) “奶奶在上海三十年，基本是在西区的繁华闹市，淮海路上做的。她也和闹市中心的居民一样，将那些边缘的区域看做是荒凉的乡下。其实，在那边缘的地方，比如閘北、普陀，倒是她们家乡人的聚集地。那大都是在历年的战争和灾荒中，撑船沿了苏州河到达上海的船民。他们找了块空地，将芦苇卷成船舱那样的棚子，住下来，然后到工厂里找活干。上海的产业工人里，至少有一半，是他们。但奶奶与他们向不往来。她也有市中心居民的成见，认为只有淮海路才称得上是上海。”王安憶，『富萍』，2005，p.3-4. 왕안이, 김은희 역, 『푸핑』, 어문학사, 2014, p.12.

18) 張忠民, 「近代上海工人階層的工資與生活——以20世紀30年代調查爲中心的分析」, 『中國經濟史研究』, 2011年第2期. 熊月之, 「近代上海城市對於貧民的意義」, 『史林』 2018年第2期, 2018.02, p.4.

19) 韓起瀾(Emily Honig), 盧明華 譯, 『蘇北人在上海, 1850-1980』, 上海古籍出版社, 2004, pp.98-110.

있던 것은 19세기 중반부터 이어진 “전쟁과 잦은 재난”에서 기인한다. 『푸핑』의 마지막 장 ‘홍수’는 상하이에 잠깐 생긴 재난이 아니라, 20세기 쑤베이 지역에 닥친 반복된 재난의 하나이며 지속적인 농촌 난민 발생의 원인이기도 하다. 20세기에 일어났던 장강의 범람- 1911년, 1921년, 1931년 여러 차례 큰 홍수가 날 때마다, 난민이 된 쑤베이 농촌 사람들은 도시 상하이로 몰려들었다. 31년 홍수 때는 6100만 묘의 경작지가 수몰되면서 4만 여 명이 기아 상태에 처하고 이 시기 7만 8천여 명의 쑤베이 난민이 상하이로 들어오게 된다.²⁰⁾ 잦은 재난뿐만 아니라 태평천국부터 시작하여 20세기 반복된 전쟁도 ‘난민’의 원인이다. 중일전쟁이 시작된 1937년 7만 5천 명의 난민 가운데 쑤베이인이 1/3이었으며, 1946년 내전 시기에는 5만 9천 명의 쑤베이 난민이 등록될 정도로 지속적인 전시 상태는 향촌을 파산시켰고 그것은 도시의 난민·빈민의 삶으로 이어졌다.

20세기 상하이는 난민과 빈민을 흡수한 셈이지만, 그러나 상하이 근대 도시의 기원은 이들의 노동을 토대로 형성되고 있다. 푸핑이 홍수를 피해 탈출하면서 바라본 재난에도 굳건한 도시는 서구 모던한 “개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도시는 재난과 전쟁으로 파산된 쑤베이 농촌을 떠난 난민들, 그들의 이주 노동이 퇴적되지 않았다면 건설되기 어렵다. 농촌을 떠난 인구가 도시의 빈민화로 이어져 골칫거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상하이 근대 도시는 20세기 전쟁과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상태의 사람들이 도시의 건설·공업의 노동력을 저임금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감당하며 뿌리내리려 했던 경험들에 기초하고 있다. 『푸핑』은 ‘변화가 주민’들이 편견과 멸시로 빈민·난민의 상징처럼 쉽게 말해버린 도시의 난민화한 삶을 “노동하고 밥을 벌어먹는” 다양한 삶들로 재발견하고 있는 셈이다.

2) 난민과 인민 사이: 도농 이주노동의 역사기억

도시의 빈민, 난민화된 삶은 49년 이전 국가의 약한 거버넌스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몫이기도 했다. 인구로서의 빈민은 도시의 민간 자선단체들과 결합하여 습근소(習勤所) 등의 사업을 통해 ‘구제와 갱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²¹⁾, 서북 개간 사업의 개척민으로 보내지기도 했다.²²⁾ 그

20) 上海工部局, 「1931年度報告和1932年度豫算」(韓起瀾 著, 盧明華 譯, 『蘇北人在上海, 1850-1980』, p.39 재인용)

21) 베이징과 상하이의 빈민 문제를 다룬 것으로 Janet Y. Chen, *Guilty of Indigence: The Urban Poor in China, 1900-1953*,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상하이 유민 문제는 阮清華, 『上海游民改造研究(1949-1958)』復旦大學 博士論文, 2008 참조.

22) Micah S. Muscolino, “Refugees, Land Reclamation, and Militarized Landscapes in Wartime

렇지만 중국의 20세기 초 도시 빈민의 문제는 파산한 개인을 구제하거나 처벌하는 문제로만 볼 수 없고, 이 문제는 위기관리에 취약한 거버넌스 및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향촌의 파산과 연동되어 있다. 1930년대 이미 사회 조사에서 드러난 농촌의 상황은 “열 집에 여덟 아홉 집은 먹을 것이 없어 그 처참한 상황은 차마 볼 수가 없다. 비적이 도처에서 생겨 나날이 증가하며, 인구는 떠돌고 사망률은 증가한다. 재해지역이 확대되어 농산물은 감소하는데, 땅은 지주들에 집중되어 대다수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한다. 즉 천재지변이 아니어도 자기 자신조차 부양하기 어려운” 삶의 상태이다.²³⁾ 20세기 전후 떠올랐던 중국의 ‘부강’ 문제는 사실 ‘독립’·‘통일’된 국가 수립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구압이 상당한 국가가 대내적 위기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버넌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할머니의 이력에서 보이는 “쭈저우허를 따라” 살 길을 찾는 쭈베이 농촌 난민들은 “전쟁과 재난”이란 거대한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실상 거버넌스 장력 바깥에 놓인, 삶의 장소에서 뿌리 뽑힌 상태나 다름이 없다.

1949년 이후 신중국 도시 상하이의 과제는 이러한 난민 상태의 삶을 존엄한 ‘인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회 개조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상하이 ‘변화한 곳의 주민’들이 빈민·난민으로 구분 지었던 자베이 ‘판자촌’을 “노동자 신촌(工人新村)”으로 바꾸는 사회주의 시기 도시 공간 개조가 그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²⁴⁾ 1949년 당시 상하이에 산재한 판자촌²⁵⁾의 115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와 빈민들이 안정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주인 되기, 식민화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의 쇄신, 사회주의의 우월성 가시화”와 같은 당-국가의 이데올로기 문제이기도 하지만, 난민 상태의 삶이 존엄이 있는 삶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²⁶⁾

난민에서 인민으로의 전환은 상하이 변두리 판자촌의 이주노동자들, 특히 방직·방적 공장을 비롯한 산업 노동자에게는 분명 사회주의 인민 ‘노동자’로 뿌리내려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회주의 시기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상하이의 방향

China: Huanglongshan, Shaanxi, 1937-45”,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69, 2010. 참조
23) 陳醉雲, 「復興農村對策」, 『東方雜誌』, 30卷13號, 1933.07. (熊月之, 「近代上海城市對於貧民的意義」, 『史林』 2018年第2期, p.2 재인용)

24) 김승욱, 「공인신촌엔 누가 살았을까 - 상하이 차오양신촌의 사회주의 도시개조」,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1, 역사비평사, 2017, pp.73-75.

25) 상하이의 100호 이상의 판자촌은 322곳. 그 가운데 2000호 이상이 4곳, 500호 이상은 36곳, 300호 이상은 150곳, 200호 이상은 93곳, 100-199호 규모는 39 곳이다. 점유면적은 1,109만 제곱미터, 봉호 칸수는 19만 7500칸 이었다(陳英芳 編輯, 『棚戶區——記憶中的生活史』, 海古籍出版社, 2006) 뤼강, 김민정 역, 「상하이 노동자신촌 - 사회주의와 존엄이 있는 ‘생활세계」, 『문화과학』, 72, 문화과학사, 2014, p.250에서 재인용.

26) 뤼강, 김민정 역, 「상하이 노동자신촌 - 사회주의와 존엄이 있는 ‘생활세계」, 2014, p.253.

이 정해졌을 때, ‘노동자’는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상하이시 인구 정책의 중용한 기본 인구이기도 했다.²⁷⁾ 생산 인구에 속하는 ‘노동자’의 삶은 뿌리내리기 쉽지만, 그러나 이 시기 비생산 인구로 분류된 ‘난민’의 경우 인민으로서의 삶은 도시에 정착하는 것이 아닌 ‘회향’을 통해서 가능했다. 1949년 이후 1950년대 상하이의 접관(도시 접수 및 관리) 과정에서 난민의 해소와 회향, 이른바 난민을 구제하여 회향을 통해 생산자로 개조한다는 “난민회향” 정책은 정부 공작의 중요한 과정이기도 했다. “회향”은 “실업노동자, 빈민, 도망 온 지주” 뿐만이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협을 가하거나(여기에는 반혁명분자도 포함된다)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유민’으로 분류되고²⁸⁾, “기녀, 탄판(攤販), 삼륜차공(三輪車工) 등”과 같은 비생산인구로 분류된 사람들까지 “난민”의 범주로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난민’을 “분산·회향시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난민상태의 인민을 “농촌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생산자로서의 인민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했지만, 이것은 한편 “도시의 부담을 경감하는” 도시 리스크 관리의 문제였기도 하다.²⁹⁾

도시의 빈민 문제가 농촌의 붕괴와 연동된다면, 한편 1949년 이후 “회향”은 도시의 리스크를 농촌(향촌)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약진 실패 이후 3년의 재해로 인해 생긴 1960년대 초 식량 위기가 도시와 농촌을 덮쳤을 때, 상하이는 “회향”을 통해 도시의 인구를 감소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했다.³⁰⁾ 『푸핑』의 「사기꾼 계집애」 편의 타오쉐핑이 63년-67년 사이 10만 이상의 청년이 움직였던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產建設兵團)³¹⁾에 참가하는 이야기가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신중국이 탄생할 무렵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타오쉐핑은 할머니가 보모로 일하는 집 큰 아이

27) 1949년 12월 중국 정부원에서 제출한 「關於上海市改建及發展前途問題」(50.3)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인구 구성에서 기본인구(공업, 항구, 철도 등 산업 노동자 등)의 비중을 늘리고 비기본인구를 분산시킬 정책을 제안하였다.(김승욱, 「공인신촌엔 누가 살았을까 - 상하이 차오양신촌의 사회주의 도시개조」,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1, 역사비평사, 2017, pp.72-73) 또한 1955년 소련의 노동평형법 이론에 근거하여 국가건설위원회의 「關於城市人口構成的初步草案」에서 구체표준으로 “기본인구 24-26%, 복무인구 18-20%, 부양인구 56-57%”로 정하고 “상하이 인구를 축소하고 인구 구성 비중을 조정한다”는 인구 건축 계획을 세운다(張坤, 「1949-1976上海市動員人口外遷與城市規模控制」, 『當代中國史研究』, 第22卷第3期, 2015.05, pp.44-45.)

28) 阮清華, 『上海游民改造研究(1949-1958)』, 復旦大學 博士論文, 2008, pp.53-64.

29) 中共中央華東局「關於上海市疏散難民回鄉生產的指示」(49.07.24)(張坤, 「1949-1976上海市動員人口外遷與城市規模控制」, 『當代中國史研究』, 第22卷第3期, 2015.05, p.42. 재인용)

30) 「中共上海市委關於貫徹執行中共中央和國務院“關於制止農村勞動力盲目外流的緊急通知”的通知」(1959.4.21)(邱國盛, 「职工精简与20世纪60年代前期的上海城乡冲突及其协调」, 『安徽史學』, 2011年第6期, 2011, p.6쪽 재인용). 도농문제의 전반 정리는 박충환,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궤적 - 근대전환기에서 사회주의시대까지」, 『中國學』, 第63輯, 2018.06. 참조.

31) 張坤, 「1949-1976上海市動員人口外遷與城市規模控制」, 『當代中國史研究』, 第22卷第3期, 2015.05, p.46. 易海濤, 「製造“十萬”: 1963-1966年上海知青支援新疆的人數與歷史記憶」, 『中國當代社會史研究』, 『安徽史學』, 2021年第1期 참조.

의 친구로 화이하이루를 맴돌았는데 늘 허언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는다. 게다가 타오쉐핑은 식사 시간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식사하는 집들을 찾아가 문간에서 밥 먹는 걸 구경하다가 이런 저런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수다를 떨곤 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허언이 있는 정도였겠지만, 할머니의 이웃 쭈저우 출신 아쥐 이모가 일하는 곳에서 집주인 할머니의 돈을 소소하게 빌려가고 갚지 않은 바람에 문제가 생겨버렸다. 빌린 돈을 받으러 호기롭게 간 사람들이 맞닥뜨린 타오쉐핑의 집은 예상과 달리 “판잣집”이고 아버지와 다락방에서 웅크리고 젖을 먹이는 계모는 “궁핍함도 고생도 아닌,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의욕 상실”의 상태다. 1960년대 초 대기근이 지나간 도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의욕이 상실된 무기력한 빈민 가정에서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기 어려웠던 타오쉐핑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상하이의 ‘하향’ 정책인 신장 농촌 개척단인 셈이다.³²⁾

신장의 생산건설단은 타오쉐핑이 거짓말로 배고픔을 감추어야 했던 상하이와 달리 “하미과랑 바리란과 포도를 ……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매달 월급을 주는”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다. 하지만 1960년대 초 상하이의 ‘회향’ 정책, 즉 도농 사이의 이주와 정착은 타오쉐핑 같이 희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만은 아니었다. 식량위기가 닥친 도시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동자 구조조정(精簡職工)을 실시했을 때, 퇴직한 노동자들의 회향은 “도시의 인구 감소” 및 식량을 생산해야 할 “농촌의 생산력 증대”로 이어져 도시와 농촌을 살릴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리스크가 향촌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도시의 공장에서 10여 년 일을 한 숙련공이 퇴직되어 회향을 할 때, 환사현(川沙縣) 베이차이공사(北蔡公社)의 경우처럼 어떤 생산대는 “토지가 적고 노동력은 모자라지 않는다”며 회향 인원 배치를 주저하고, 어떤 생산대는 “식량 해결이 어렵다”등의 구실로 완강히 거부한다. 향촌의 사람들은 회향한 노동자들을 농촌 생산에 도움이 안 되는 ‘무능력한 사람(蹩脚货)’이라 하거나, “개구리가 뱀이 굶어죽는다고 구하란 말이냐”며 임금 수준이 더 높았던 도시 노동자를 향촌이 받는 걸 풍자하기도 했다.³³⁾ ‘급진적’ 공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10여 년 사회주의 노동자가 되었지만, 대약진의 실패에 대기근까지 겪친 민생 위기에서 갑작스럽게 회향되어 정착해야 할 때, 늙은 퇴직 노동자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을까. 회향 노동자의 갑작스런 수입 감소로 개개의 가정이 붕괴하면서 이혼 및 자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32) 王安憶, 『富萍』, 2005, pp.52-61. 왕안이 저, 김은희 역, 「사기꾼 계집애」, 『푸핑』, 2014, pp.98-114.

33) 上海市委農村工作部精簡小組, 「川沙縣北蔡公社安置回鄉人員工作情況」(1964.08.10)(邱國盛, 「職工精簡與20世紀60年代前期的上海城鄉衝突及其協調」, 『安徽史學』, 2011年第6期, 2011, p.8. 재인용)

되기도 했다.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대기근을 통과한 1960년대 도농(城鄉二元化) 사이 그 어느 장소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채 내부 난민이 되어버리는 삶, 그것은 도농 사이 이주와 정착의 또 다른 역사 기억이기도 하다.

3. ‘판자촌’이란 장소

1) 이주 노동자들의 공동체 마을(村)

(1) 쑤베이 출신 사람들이 “쑤저우허를 따라” 살 길을 찾으며 지었던 “선실 모양의 판자집”, 즉 상하이의 모든 수로에 있었던 선상거주민들의 집은 “떠다니는 판자촌”이라 불렸으며 상하이 거주민들에게 늘 난민·빈민을 상징하는 기호였다.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이미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겨우 강기슭 땅 위에 지었어도 판자촌은 화재나 홍수로 인해 늘 무너질 위험에 노출된 난민들의 거주지로 여겨져 도시 개조 사업의 철거(개조) 대상이었다.³⁴⁾ 그러나 판자촌은 『푸핑』에서는 편견·멸시의 대상이거나 구제·시혜를 받을 빈민 거주지가 아니다. 올드 상하이 조계지 같은 “서유럽적인” 모더니티가 빛나는 변화가나, 당-국가와 사회가 구성한 “사회주의적 규범”이 잘 작동하는 노동자 신촌과는 다른 어떤 삶의 공간 - 즉 판자촌은 1960년대 상하이의 삶의 장소의 속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소설의 장치이기도 하다.³⁵⁾

『푸핑』의 판자촌의 장소의 속성은 푸핑의 외숙 쑤다량을 중심으로 한 자베이 판자촌과, 푸핑의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들이 사는 메이자차오 판자촌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판자촌은 단순히 외부에서 관찰·구경했을 때의 이미지, 즉 부유하고 있거나 쉽게 무너져 사라질 것 같은 이미지로 재현되지 않는다. 소설은 자베이의 쑤다량과 마을 사람들, 메이자차오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의 속성을 어떠한 경험으로 구성해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즉 판자촌의 사람들이 “스스로 노동하는 힘을 통해” 장소에 뿌리내리려는 삶의 이야기를 이 장소에 감응하는 푸핑의 감각과 교직함으로써, 편견 속에서 소비되고 있던 난민화된 삶 판자촌의 이미지를 깨고 있다. 판자촌은 외부자가 피상적으로 재현한 난민, 빈민의 거주지가 아니다. 난민상태를 버티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삶을 교직시키는 장소로, 여기에 이주 노동자들

34) 韓起瀾 著, 盧明華 譯, 『蘇北人在上海, 1850-1980』, 上海古籍出版社, 2004, p.18. 韓起瀾(Emily Honig) 著, 韓慈 譯, 『姐妹們與陌生人——上海綿絲廠女工, 1919-1949』, 江蘇人民出版社, 2011, p.53.

35) 왕샤오밍,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 - 왕샤오밍 문화연구』, 문화과학사, 2014, p.34.

의 서사가 열전처럼 펼쳐지고 있다.

푸핑의 외숙 쑤다량의 이야기(『10장 쑤다량』)는 쑤베이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상하이에 뿌리 내리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열두 살에 고향을 떠나 큰 아버지를 따라 시작한 ‘뻬일’. 쑤다량의 이주노동은 쑤베이 출신 남성의 전형적인 이주노동 중 하나이다.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면 힘을 쓸 수 있는 남성의 경우 인력거꾼, 짐꾼, 건축 노동, 부두 하역, 분노 수거, 쓰레기 운반 등의 일을 했다.³⁶⁾ 쑤다량이 쑤베이 성화를 떠나 상하이의 쑤저우허에서 일하게 된 것은 ‘할머니’의 이력에서 본 것처럼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향촌의 붕괴가 원인이며, 여기에는 쑤다량의 이야기처럼 “가난하여 척박한 밭 한 켤레도 없는” 파산한 상태에서 “대지주나 부농”에 불려 다니며 “천대를 받으면서” “철마다 불려가 일을 해야만 하는” 착취도 더해져 있다. 이를 벗어나고자 상하이로 간 쑤베이 성화 사람들이 처음 했던 일은 “상하이 부두에서 분노선을 세내어 뚱 치우는 일”이었으나, 이 또한 “분노 부두마다 배후에 막후의 거물이 있고” “군소 뚱 두목들 아래” “갖은 착취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분노선 일로 “손가락 틈새에 떨어지는 콩고물이 마을 사람들 대다수를 먹여 살려” 파산한 향촌을 지탱한다.³⁷⁾

그러나 파산한 향촌, 도시의 밑바닥 아래에서도 존재했던 이러한 크고 작은 착취는 쑤다량이 결혼한 1950년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사라지고 있다. “1956년 합작사가 세워지고 통일적으로 편대를 짜서 선박을 배치하여” 쑤다량이 “쓰레기 운반조”에 배치되었을 때, 여기에서는 위계와 착취를 신경 쓰지 않고 “순번에 따라 공동운영자금”으로 “배를 수리하며” 운송량을 늘릴 수 있었다. 덕분에 먹고 마시는 것 외에 절약하면 남는 것도 있는 “태평스런 나날”이라 “강 언덕 위에 집을 한 채 사고 싶다”는 바람도 갖게 된다.³⁸⁾ 소설은 상하이시가 관리하고 신경을 쓰는 기본생산인구인 노동자와 노동자신촌(工人新村)과 같은, 당-국가와 사회가 상호 구성하여 만드는 문화적 활력을 서사의 중심에 놓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당-국가의 거버넌스는 상하이 변두리 판자촌 삶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³⁹⁾ 그러나 쑤다량과 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36) 빈곤층으로 분류되었던 이주노동들도 다시 빈곤의 정도에 따라 나뉘었다. 저임금에 강도 높은 노동 환경에 있었던 상하이 산업노동자를 비교적 빈곤한 층으로 본다면, 인력거꾼·부두 노동자·쓰레기 운반·분노 수거 등의 노동은 산업노동자에 보다 더 빈곤한 층에 속한다. 인력거꾼의 수입이 산업노동자 중 가장 소득이 낮았던 견직공장 여공의 소득과 비슷한데 이조차도 정규적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반실업 상태에 가까웠다. 실업, 무직, 부랑자의 경우 극빈층에 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의 빈곤층은 완전히 파산한 농민에 비해 처지가 나은 상태로 간주된다. 熊月之, 「近代上海城市對於貧民的意義」, 『史林』, 2018年第2期, 2018.02, pp.3-7.

37) 王安憶, 『富萍』, 2005, pp.92-93.王安이 저, 김은희 역, 『푸핑』, 2014, pp.170-171.

38) 王安憶, 『富萍』, 2005, pp.99.王安이 저, 김은희 역, 『푸핑』, 어문학사, 2014, p.184.

39) 김은희는王安이『푸핑』의 서사전략의 하나로 “소시민의 일상사를 전경화하고 과거 역사와 이념이 약화되거나 모호하게 되어 후경화된다”고 본다. 김은희, 「王安憶의『富萍』과上海移民者

사회주의 ‘평등’의 이념은 합작사 속에서 “순번에 따라” “공동의 자금”으로 배를 수리하고 운영하면서 노력만 하면 “강 언덕 위에 집을 얻을 수 있다”는 바람도 가질 수 있는 “태평스런 나날” 속에서 경험되는 어떤 것이다. 노동자신촌과 같은 공간에 작동하는 당-국가 거버넌스의 모습에 비하면 중심적이지 않다. 그러나 당-국가 행정의 장력의 끝에 있는 듯하지만, 도시의 경계에 있는 판자촌 이주노동자의 노동의 세계에서 “태평스런 나날”을 경험하게 했다면, 그것은 마치 삭풍을 막고 있는 저 멀리 보이는 산처럼, 멀리 있지만 큰 바람을 막고 있는 것이다. 물론 1960년 대기근이 “뜻하지 않게 찾아 왔을 때” “모든 걸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모아 놓은 것으로 입에 풀칠하며 연명하면서 버티고 애를 쓴 덕에 1963년 무렵 쑨다량의 가족은 “강 언덕 22평방미터 단칸집”을 사서 “강 언덕 위에 집 한 채를 사고 싶다”는 바람을 이루며 떠다니는 판자촌인 선상가옥에서 벗어나게 된다. “소매를 걷어 붙인 채…… 울퉁불퉁한 진흙땅을 평평하게 골라 분주히 움직여” 단장한 “강 언덕의 집”,⁴⁰⁾ 이 ‘집’은 쑨베이에서 온 쑨다량과 가족이 당당한 노동으로 일군 것이다. 동시에 화이하이루에 있던 푸핑이 외숙인 쑨다량을 찾아 왔을 때 본 상하이 외곽 자베이 ‘판자촌’ 마을이기도 하다.

(2) 화이하이루를 떠난 푸핑은 무작정 외숙을 찾아 자베이에 왔을 때, 이 장소를 마치 “커다란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⁴¹⁾ ‘할머니’의 표현대로라면 쭈저우허를 따라 올라온 고향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육교 위에서 본 자베이 판자촌은 “다닥다닥 빼곡하게” 붙은 채 “틈만 보이면 바늘을 꽂는 격으로 뻥뻥이 들어차” 있어 외숙을 찾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았지만, 판자촌에 들어간 푸핑은 약 두 시간 만에 외숙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같이 푸핑의 귀에 익숙한 사투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틈새 하나 없이 뻥뻥하게 들어찬 집들 사이에서 외숙을 찾는 낯선 푸핑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같이 물어가며 찾고 중간에 국수도 말아 주면서 두 시간 만에 외숙의 집을 찾게 해 준다. 판자촌은 익숙한 사투리, 즉 쑨베이 사투리를 쓰는 이주노동자들이 “커다란 그물처럼 서로 연결된” 응집력이 있는 ‘마을’을 이룬 셈이다.⁴²⁾ 장강 이북의 쑨베이 사투리는 장강 이남의 발음과 달라 말투로도 출신을 알

의 서사』, 『中國文學』, 第84輯, 2015, p.75.

40) 王安憶, 『富萍』, 2005, pp.100-101. 왕안이 저, 김은희 역, 『푸핑』, 2014, pp.186-187.

41) “这一大片棚户, 就像一张大网, 它们互相联系” 王安憶, 『富萍』, 2005, pp.84. 왕안이 저, 김은희 역, 『푸핑』, 2014, p.155.

42) “他们都是苏北籍贯, …… 也跟着说苏北乡音. 走进他们的住宅区, 就好像走进一个村庄. 他们比村庄还抱团, 还心齐, 一家有事, 百家帮忙. …… 他们的乡音就又是一个标志, 标志他们来自于同一个

수 있어 상하이에서 같은 이주노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구분이 되었는데,⁴³⁾ 푸핑이 찾아 간 자베이 판자촌은 일종의 향촌 파산의 위기로 도시에 들어온 쑤베이인들의 또 다른 ‘향촌’ 공동체일 가능성이 있다. 전쟁과 재난으로 뿌리 뽑힌 향촌의 사람들이 말투, 음식 습관 등 향촌의 문화를 공유하며 도시의 경계선에 다시 향촌 공동체를 이룬 것이기도 하다.⁴⁴⁾ 이들이 모여 이룬 응집력 있는 ‘마을’을 1949년 이전의 시스템에서는 구제해야 할 도시 ‘빈민’의 시그널로 파악했지만 이것이 무수히 많았던 향촌 파산을 알리는 시그널이기도 하다는 점은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⁴⁵⁾

한편 자베이 옆 또 다른 판자촌인 메이자차오는 이 역시 ‘마을’을 이루고 있지만, 향촌공동체를 옮겨 놓은 듯한 쑤다량의 자베이 판자촌과 다른 응집력을 구성한다. 자베이와 달리 “주민들도 꽤 복잡하여, 장쭈의 연청, 렌수이 .. 산둥, 허난 사람” 등 여기저기 서로 연고가 없는 낯선 사람들이 “이발, 칼갈기, 채소 시장에서 파·생강 팔기, 생선비늘 굽기 등” 닥치는 대로 생계를 꾸려 살고 있다. 예전 “쓰레기장이었던” 메이자차오에 “넝마주이들이 샅자리로 판잣집”을 짓기 시작해서 “넝마주이 출신들이 많은” 곳, 메이자차오는 이후 푸핑이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룰 모자(母子)가 사는 터전이기도 하다.⁴⁶⁾ 푸핑이 이곳에 처음 온 것은 외숙 쑤다량과 산책 겸 염수탕과 고기를 사러 들렀을 때인데, 흥미롭게도 “푸핑의 감각”은 메이자차오에서 가장 섬세하게 작동하고 있다. “걸어 들어가면서” “찬찬히 살펴보다가” 푸핑은 “그 허름한 집집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형형색색임을 발견” 한다. 즉 메이자차오는 왕안이가 이 소설에서 가장 공들여 섬세하게 묘사하는 장소로, 조금 길지만 푸핑의 감각으로 재현되는 마치 ‘풍경’ 같은 판자촌 메이자차오를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집 창문 어귀에 유리병 두 개가 놓여 있었다. 병 안에는 빨강 파랑 눈깔사탕

部落.” 王安憶, 『富萍』, 2005, p.86.

43) 상하이 여공을 연구한 에밀리 호니그에 따르면, 말투, 옷차림, 음식 습관 등으로 출신이 구분되며 이 차이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생기는 대립·분기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쑤베이 사투리는 강남 지역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다. 주식을 밥이 아닌 면으로 먹는데 상해 본지인은 이들을 북방인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또한 강남지역 여성들이 가내 수공업 종사자가 많았다면 쑤베이 지역 여성들은 가내 수공업은 보편적이지 않아 돼지를 치고 분노를 나르고 뺨질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차이들은 여공의 공장 노동에도 적용되어 쑤베이 출신은 상하이 본지인이거나 강남 출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 예를 들어 쑤베이 여공의 경우 먼지가 많고 공기가 불결하여 노동 환경이 열악했던 粗紗 공장에서 일하고, 면사공장은 상하이, 방직은 우시 등으로 나뉜다. 韓起瀾 著, 韓慈 譯, 『姐妹們與陌生人——上海綿絲廠女工, 1919-1949』, 江蘇人民出版社, 2011, pp.15-19. 및 pp.58-64.

44) 韓起瀾 著, 盧明華 譯, 『蘇北人在上海, 1850-1980』, 上海古籍出版社, 2004, pp.75-87.

45) 熊月之, 「近代上海城市對於貧民的意義」, 『史林』, 2018年第2期, 2018.2, pp.9-11.

46) 王安憶, 『富萍』, 2005, p.185. 왕안이 저, 김은희 역, 『푸핑』, 2014, p.338.

이 담겨 있고, 다른 병에는 갈색의 투명한 쫄즈 사탕이 담겨 있었다. 바짝 붙은 이웃 집 문안에서 날이 밝기도 전에 떡을 찼다. 증기가 솟구치면서 쌀가루의 발효되는 시큼한 냄새가 온 판자촌으로 퍼져나갔다. …… 골목 어귀 건너편에는 이를 뽑고 의치를 만드는 이가 살았다. 그 사람의 이웃은 제사 때 태우는 지전에 쓰일 종이(錫箔)를 종일토록 접었다. 좀 더 가면 산둥사람이 살았다. 연말이 되면 수많은 산둥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의 집 주방에서 호박씨나 콩, 밤 따위를 볶았다. 그러면 진한 버터 냄새가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모퉁이를 돌아들면, 판금장이 집이 나왔다. 그는 내버린 양철통을 두들겨서 평평하게 편 다음, 다시 두들겨 크고 작은 쓰레받기를 만들었다. 깡통 상자는 두들겨 구공탄 모양으로 만들었다. …… 또 낮은 형겔에 풀칠하여 신발 밑창을 만드는 집이 있었다. 주어진 낮은 천 조각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 조각조각 풀칠하여 밑창을 지어 큰 것 한 장에 일 마오를 받았다. 생계를 꾸리는 다양한 모습은 녁마주이에서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 이곳의 생계수단은 잡다하고도 비천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결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해하면 그들은 조금도 불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성실하게 일해서 의식주를 해결하였고,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한 푼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구질구질한 생계 이면에는 착실하고도 건강하며, 자존적이고 자족적인 힘이 감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힘은 작은 것들(細節)로부터 흘러나온다.⁴⁷⁾

화이하이루 “수정궁”같은 빛에는 반응하지 않던 푸핑은 이곳 메이자차오의 “살아가는 모습이 형형색색”임을 발견하면서 온 감각을 다 열고 있다. “창문 어귀 작은 유리병 안의 사탕의 빛깔”, “증기가 솟아오를” 때의 온기, “쌀가루가 발효되는 시큼한 냄새”, “호박씨 등을 볶는 냄새”, “양철통을 두들겨 평평하게 만드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메이자차오는 시각·후각·미각·촉각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열려야 감지되는 장소이다. 쓰레기장에 녁마주이들이 모여 형성한 메이자차오는 “뒤죽박죽 구질구질한 생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푸핑의 감각으로 재현된 메이자차오의 풍경은 “형형색색” 두터운 질감으로 채색된 풍경화에 가깝다. 이러한 미적 재현은 녁마주이에서 시작된 비천해 보이고 불결해 보일 수 있는 이들의 생계 “이면”을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알고 보면” 이들은 “조금도 불결하지 않다”, 오히려 이 장소는 “성실하게 일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한 푼도 없는” “착실하고 건강하며, 자존적이고 자족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다. 푸핑을 통해 소설이 공들여 감지하는 이 장소는 얼핏 보면 기본적 생활도 위태로운 가장 취약한 밑바닥 같지만, (도시)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시공간에 자족하지 못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떠 있는 것과 달리,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것(細節)”에서도 온전하게 삶을

47) 王安憶, 『富萍』, 2005, pp.185-186. 왕안이 저, 김은희 역, 『푸핑』, 2014, pp.339-340.

“자족”하는 “힘”을 생성해 내는 장소로 드러나고 있다.

2) 자존감,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의 선순환

『푸핑』의 판자촌 마을은 “땀 흘려 성실하게” “노동하며 밥벌이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집적된 장소이다. 상하이 변화가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쑤베이 등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에서 뿌리 뽑힌 사람들인 ‘난민’이자 도시에 뿌리내리기 힘든 ‘빈민’이었지만, 소설은 오히려 이 난민상태의 사람들이 노동하고 밥벌이 하며 삶을 구성하고 도시에 뿌리내리는 경험을 주목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난민상태의 사람들이 상하이 도심 거주민에게 질문을 하는 셈이다. 이 도시에 뿌리내리며 안정된 삶의 리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예를 들어 메이자차오 판자촌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소한 생계 노동에서도 “자존”과 “자족”하는 힘을 끌어낼 때, 과연 수정궁과 같은 화려한 불빛의 변화가의 사람들은 온전히 삶의 시공간을 “자족”하는 힘을 끌어내고 있을까.

“자존”의 문제는 『푸핑』에서는 상하이의 노동하는 모든 삶에 관통되어 있다. 화이하이루에서 돌봄 노동을 하는 할머니, 아귀 이모, 뤼핑셴을 비롯하여, 쓰레기 운반선에서 일하는 외숙 쑤다량, 외숙모 등 자베이촌의 사람들, 마치 한 폭의 풍경화처럼 재현된 메이자차오 판자촌의 잡다한 생계 노동들, 이 모든 노동하는 삶은 “바늘 하나라도 내 힘으로 얻으려 하는” “스스로 자신에게 의지하는”⁴⁸⁾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삶이다. 노동하며 독립적으로 자신을 책임지는 삶은 비록 현재가 궁핍하고 고생스러워도 “자존” “자족”의 힘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게 되면 타오쉐핑의 아버지처럼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의욕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타오쉐핑의 아버지의 무기력은 당-국가의 하향 정책이었던 신장 개척단을 지원한 딸 타오쉐핑의 “처음으로 보인 활력”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대기근이 지나간 도시, 스스로 무너져 버린 삶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고 이 가족을 보호하는 힘은 타오쉐핑에게 활기를 불어 넣은 당-국가의 정책일 뿐이다. 이와 달리 『푸핑』의 노동하며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책임지는 삶들은 전쟁과 재난을 비롯한 거대한 조류같은 역사의 변동에 휩쓸려 난민 상태가 되더라도 자존할 수 있는 생활을 유지한다.

이러한 “자존”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구별 짓고 나아가 남을 멸시하고 모욕감을 주어야만 자기 존재가 드러났던 변화가 사람들과 다르다. 이것은 쑤다량의 일

48) 王安憶, 『富萍』, 2005, pp.72-73. 왕안이 저, 김은희 역, 『푸핑』, 2014, pp.134-135.

화에서 선명해진다. “사람이 고생은 할 수 있어도 모욕은 당해서는 안된다.”⁴⁹⁾ 쑨다량이 어릴 적에 배웠던 난스(南市)의 선생님의 이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쑨다량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 분노 부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 어린 쑨다량이 공부를 하러 처음 선생님 찾을 때의 마음이 어떨지는 짐작이 가능하다. 처음 선생님 집을 찾아갔을 때 쑨다량이 선생의 요강을 비우고 청소를 하려 했던 마음이 그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 선생님은 절대 하지 말라며 자신이 직접 요강을 버리면서 “고생을 할 수 있어도 모욕은 당해서는 안된다”는 첫 가르침을 주게 된다. 고생스럽고 궁핍할지라도 스스로를 낮추고 비하하지 말라는 것, 빈곤하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고단한 삶에서도 “자존”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문제는 『푸핑』의 노동하는 삶 곳곳에 배어 있는 감각이기도 하다.

이처럼 스스로를 책임지는 노동하는 삶들을 기반으로 『푸핑』은 장소에 뿌리내려 삶의 리듬을 만들어 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통 ‘집’ ‘가족’ ‘고향’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전쟁과 재난으로 파산된 향촌을 떠나 도시로 온 이주노동자의 삶 속에서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만들어 가야하는 문제가 된다. 스스로를 책임지는 노동하는 삶에 안정된 삶의 리듬이 생겨날 때, 이 삶은 장소에 뿌리를 내리면서 ‘집’ ‘가족’ ‘고향’의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다. 결혼 때문에 상하이에 오게 되었던 푸핑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화이하이루에 오기 전, 쑤베이 작은 아버지 집에 더부살이 했던 ‘고아’ 푸핑은 손주 며느리감으로 화이하이루로 올라와 할머니와 인연을 맺게 되지만 ‘고향’이 자신에게 운명처럼 부과한 ‘가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푸핑이 통과하는 화이하이루, 자베이, 메이자차오가 도시의 난민 상태를 견디고 장소에 뿌리를 내리며 ‘집’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장소라면, 푸핑의 이동은 이러한 장소 곳곳에 깊이 들어가면서 ‘가족’과 ‘집’의 의미를 질문해 나가며 자신의 의지로 가족과 집을 구성해나가는 서사를 만든다.

푸핑이 자신의 새로운 가족과 집으로 선택한 메이자차오 판자촌은 푸핑이 거친 세상 장소 가운데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장소에는 저마다의 “자존과 가족”의 힘이 흘러나와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소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겸손하고 공손하게” 열려 있다. 낯선 이에게 겸손하고 공손한 것은 “자기비하”가 아니라 일종의 “자애(自愛)”이기에 가능하며, 자애는 “자존” “가족”의 힘이 뒷받침하고 있다.⁵⁰⁾ 이것은 낯선 이를 멸시하거나 혐오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미리 낮추어 권위에 숙여 자기를 보존하는 것과 다르다. 멸시와 혐오, 자기비하, 굴종은 사회주의 ‘평등’의 이념을 목표로 한 도시에 여전히 배어있지만, 가

49) “人可吃苦，却不可受辱” 王安憶, 『富萍』, 2005, p.96. 왕안이 저, 김은희 역, 『푸핑』, 2014, p.178.

50) 王安憶, 『富萍』, 2005, p.186. 왕안이 저, 김은희 역, 『푸핑』, 2014, p.341.

장 빈곤한 난민들이 모여 사는 이 장소에서는 낯설다.

푸핑이 선택하는 결혼의 대상은 할머니 고향의 손자도 아니고, 외숙이 사는 자베이 쭈베이인들 마을의 광밍도 아니다. 자베이 외숙의 마을은 ‘커다란 그물처럼 연결된’ 향촌 공동체로 푸핑에게도 익숙하지만,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된다” “정해진 연이면 따라야 한다”는 향촌의 윤리 규범이 여전히 작동하는 곳이기도 하다. 친밀한 관계는 ‘커다란 그물처럼 연결된’ 향촌 공동체의 서로 익숙한 사람들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며 서로 돕는 윤리의 순환도 이 내부에서만 일어난다. 하지만 메이자차오는 “서로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만든 마을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겸손하게” 열려 있다. 이 장소의 ‘친밀함’은 이처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 밖 낯선 타자에게도 열려 작동한다. 이것은 쓰레기장 념마주이들이 만들었던 메이자차오를 약자들이 서로 돕고 품는 윤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친밀한 마을 공동체까지로 확장시키는 힘이기도 하다. 푸핑이 선택하는 결혼 대상은 바로 이러한 마을 공동체를 삶의 터로 하고 있다. 중국은행 말단 직원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뜬 뒤 가장을 잃은 모자는 상하이와 안후이 고향을 오갔지만 어디에도 환대받지 못해 정착하기 어려웠고 게다가 아들이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되면서 삶이 녹록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장애를 가진 아들과 어머니가 들어오게 된 메이자차오는 모자에게 자연스럽게 열려 있었으며 이들이 뿌리를 내리는 장소가 된다.

“…… 그런 다음에 메이자차오에 도착했다. 아이가 작은 목발을 짚고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나타난 두 손이 거칠지만 힘겹게 아이를 들어 올리더니 목발까지 손수레나 삼륜차에 실어 끌고 갔다. …… 아이는 좀 더 자라자 지나가던 자전거를 마주치면 쩍싸게 두 목발을 한데 합친 다음, 몸을 틀어 자전거 뒤에 올라타기도 했다. 몇 몇 집은 념마를 주웠는데, 책 따위를 주워오면 아이한테 고르라고 주었다.”⁵¹⁾

메이자차오에서 자라난 장애를 가진 아이, 그러나 “인정 많고 무뎌한” 메이자차오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나 장애가 있지만 “성품이 안온하고” “배려할 수 있는” 남자, 그가 푸핑이 선택한 결혼 상대이다. 또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호 친밀감이 선순환하는 메이자차오는 푸핑이 ‘집’과 ‘가족’을 이루어 뿌리를 내리려는 장소가 되고 있다. 푸핑에게 ‘집’ ‘가족’ ‘고향’의 의미는 난민상태를 견디면서도 낯선 타자에게도 공손하게 열릴 수 있는 자존자애의 힘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친밀감이 공동체 외부로도 열려 있는 장소에서 생겨나는 셈이다.

51) 王安憶, 『富萍』, 2005, p.193. 왕안이 저, 김은희 역, 「19장 어머니와 아들」, 『푸핑』, 2014, p.353.

4. 나오며

1960년대 상하이의 생활을 그려낸 『푸핑』은 “서유럽적이지도 않고 사회주의적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은” 생활공간을 소설세계의 중앙에 위치시킨다. 『장한가』에서 보여준 섬세한 서사와 다르게 60년대 상하이 밑바닥 생활을 다룬 이 변화를 혹자는 예술의 시야가 상하이 주변인으로 국한되며 삶을 풍부하게 다루지 못한다고 하거나, 푸핑의 서사와 상하이 이주민 서사가 짜임새가 없고 밋밋하여 종잡기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⁵²⁾ 조계지의 코스모폴리탄한 모던의 풍경을 두텁게 재현하던 『상하이 모던』과도 달랐고, 사회주의 시기 ‘노동자신촌’의 노동자 인민의 존엄한 삶과도 분명 달랐다. 물론 장소기억일 수 있는 상하이의 이주 노동자들의 여러 서사는 역사의 공식대본처럼 강력하지도 않으며 또한 저항대본이나 고양된 혁명의 감정처럼 강렬한 충격도 없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초 대기근, 생존의 막다른 길에 도달한 고립된 향촌의 아포칼립스 서사— 제한된 식량 배분을 위해 아이들을 내다버리고 그 아이들의 시신을 먹은 까마귀를 잡아먹고서라도 마을이 살아남아야 하는 식의 엔렌커의 『일광유년』과 같은 충격은 찾을 수가 없다. 서사는 강렬한 충격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퇴적되어 이제는 물론 기억들, 역사 배면의 은닉대본들을 발굴하고 있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주류 역사 서사처럼 일관된 이야기궤미에서 오는 맛도 찾기 어렵다.

하지만 대기근을 통과한 1960년대의 상하이의 시공간이 ‘생존’의 문제에 둔감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푸핑』은 ‘생존’의 문제를 인내심을 가지고 상하이 밑바닥에 가라앉은 역사기억들에서 찾아내는 것이기도 하다. 1960년대 상하이 생활 세계를 통해 20세기 중국의 난민화한 삶의 작은 역사를 찾아내고 이들을 통해 어떠한 생존이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것은 엑스포를 개최하며 국제도시로 변신하려는 상하이의 코스모폴리탄한 조계지의 기억 ‘올드 상하이 노스텔지어’와 다르며, 오히려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무엇을 (못)보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과 재난으로 향촌이 파산되어 도시의 난민이 되고 거둬들인 노동에도 빈민이었던 삶 - 상하이의 이주 노동자들의 삶의 이야기는 20세기 도시와 농촌 사이를 유동하며 ‘난민-인민’ 사이를 유동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기억한다. 상하이의 ‘근대적’ 도시는 이들의 노동과 삶이 퇴적된 장소다. 『푸핑』은 이러한 이주노동의 삶을 난민·

52) 唐曉丹, 「解讀『富萍』解讀王安憶」, 吉素芬, 「『富萍』: 人生的另一種審美形式」 등으로 김은희, 위의 글, p.72의 정리를 참조.

빈민이란 시혜적 대상으로 스펙터클화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상태를 견디며 “자존” “자족”의 태도로 뿌리내리려는 삶과 그들의 공동체를 미학적으로 재현하며 20세기 상하이를 만든 장소기억이자 역사기억의 가능성으로 복원하고 있다.

난민화한 삶이 ‘자존’과 ‘자족’의 힘을 잃지 않는 것은 만만치 않은 사회적 마음의 힘을 필요로 한다. 『푸핑』은 난민들이 서로에게 열려 존엄을 잃지 않고 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 그 가능성을 탐색하며 동시에 사회주의 거버넌스의 장력 끝에서 생존하는 생활에 호혜적 윤리가 순환하는 흔적을 놓치지 않는다. 이 문제는 20세기 어느 시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장 수정궁의 빛에 압도되고 현기증을 느꼈던 왕타오들이 21세기 상하이 엑스포에서 수정궁과 같은 전시공간을 짓고 자신들의 모더니티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을 때, 19세기 이후 내내 짓누른 ‘부강’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자신할 때, 과연 ‘난민화한 삶’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일까. 즉 민생의 ‘생존’의 문제, “장소에 뿌리를 내리며 안정된 삶의 리듬을 갖는” 문제는, 자본주의가 가속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각자도생’의 나침반만이 유일한 인생의 가르침이 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문제적이다. “공동부유”를 깃발로 내걸었지만, 농민공 뿐만 아니라 도시의 ‘신빈민’의 난민상태와 같은 마음은 시그널로 잡히지 않고 유령화 되기 쉽다. 푸핑의 감각이나 푸핑이 만난 ‘자존’ ‘자족’의 힘을 가진 노동하는 삶, 이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타자에게 열리는 사회적 마음의 힘이 ‘신빈민’에 처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 ‘모던 상하이’는 올드 상하이 노스텔지어의 기억만이 아니라,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마을과 20세기 난민 중국의 역사 기억의 맥락을 풍부하게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것은 과거 그들의 삶이 아니라 지금 - 여기 현재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 리어우판, 장동천 외역, 『새로운 중국 도시문화의 만개, 1930-1945』,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박자영, 『상하이의 낮과 밤 - 현대성의 문화와 일상, 대중문화』, 그린비, 2020.
 박철현 엮음,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1, 역사비평사, 2017.
 에드워드 펠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왕샤오밍, 김명희 외역,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 - 왕샤오밍 문화연구』, 문화과학사, 2014.
 왕안이, 김은희 역, 『푸핑』, 어문학사, 2014.
 陳尙凡 外交點, 『走向世界叢書』6, 湖南人民出版社, 1981.
 韓起瀾(Emily Honig), 盧明華 譯, 『蘇北人在上海, 1850-1980』, 上海古籍出版社, 2004.

- _____, 韓慈 譯, 『姐妹們與陌生人——上海綿絲廠女工, 1919-1949』, 江蘇人民出版社, 2011.
- 王安憶, 『富萍』, 上海文藝出版社, 2005.
-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上海棚戶區的變遷』, 上海人民出版社, 1962.
- Janet Y. Chen, *Guilty of Indigence: The Urban Poor in China, 1900-1953*,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논문>

- 김은희, 「王安憶의 『富萍』과 上海 移民者の 서사」, 『中國文學』, 第84輯, 2015.
- 노정은, 「왕안이 상하이 서사의 지점들 - 『장한가』에서 『푸핑』으로」, 『인문과학』, 104, 2015.
- 뤄강 저, 김민정 역, 「상하이 노동자신촌 - 사회주의와 존엄이 있는 ‘생활세계」, 『문화과학』, 72, 문화과학사, 2014
- 박충환,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궤적 - 근대전환기에서 사회주의시대까지」, 『中國學』, 第63輯, 2018.06.
- 손주연, 「여성의 시각에서 보는 상하이 도시공간 - 왕안이 소설 『푸핑』 읽기」,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23집, 2022.06.
- 임춘성,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상하이 민족지(3) - 『푸핑』」, 『중국현대문학』, 72, 2015.
- 葛 亮, 「鄉關何處-論王安憶小說中的“城市移民”群落」, 『當代作家評論』, 2013年第4期, 2013.
- 羅 崗, 「空間的生產與空間的轉移: 上海工人新村與社會主義城市經驗」, 『華東師範大學學報』, 第39卷第6期, 2007.
- 邱國盛, 「职工精简与20世纪60年代前期的上海城乡冲突及其协调」, 『安徽史學』, 2011年第6期, 2011.
- 王安憶, 「探視城市變動的潛流——王安憶談長篇新作『富萍』及其他」, 『王安憶說』, 湖南文藝出版社, 2003.
- 熊月之, 「近代上海城市對於貧民的意義」, 『史林』, 2018年第2期, 2018.02.
- 易海濤, 「製造“十萬”: 1963-1966年上海知青支援新疆的人數與歷史記憶」, 『中國當代社會史研究』, 『安徽史學』, 2021年第1期.
- 張忠民, 「近代上海工人階層的工資與生活——以20世紀30年代調查為中心的分析」, 『中國經濟史研究』, 2011年第2期.
- 張 坤, 「1949-1976上海市動員人口外遷與城市規模控制」, 『當代中國史研究』, 第22卷第3期, 2001 5.05.
- 阮清華, 『上海游民改造研究(1949-1958)』, 復旦大學 博士論文, 2008.
- Micah S. Muscolino, “Refugees, Land Reclamation, and Militarized Landscapes in Wartime China: Huanglongshan, Shaanxi, 1937-45”,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69, 201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难民, 移住劳工, 城乡二元化, 棚户区, 上海怀旧, 自尊, 互惠伦理循环				
	영문	Migrant labor, Refugee, Urban-rural dualization, Shanty towns, Shanghai nostalgia, Self-esteem, Cycle of reciprocal ethics				
<div>Migrant Workers-Willages Surrounding “Modern Shanghai” : The Issues of the Life of Refugees and the People, Community Viewed from <i>Puping</i></div> <div>Cheon Jin</div> <div><p>This study pays attention to ask “what” people seized with the memory method of nostalgic culture fever of Shanghai “had seen and had failed to see.” When we extend this question and read Puping in depth, we end up asking the issue of “livelihoods of the people” as a world of experience and survival of the modern Chinese history of the 20th century in which a variety of lives of migrant workers had undergone in Shanghai during this period of socialism, and not as the fixed memory of modernity of Shanghai that is easily consumed. The collapse of rural villages due to wars and disasters and the concomitant urban migrant labor and refugeeized lives--The multifarious life stories of migrant work described in Puping arouse the problem of migration and settlement in modern Chinese history that oscillates between the desire for labor and survival in pursuit of a stable rhythm of life and the reality of migration and labor floating from the place to another after having been uprooted from their original place. At the same time, this shows that refugeeized lives in the city not only form lives with self-esteem through their own labor even in precarious places such as “shanty towns” but also create a community in which reciprocal ethics circulates, taking root and acquiring a sense of placeness. It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which the community of the weakest members of society open to the external world without having to damage their self-esteem. Despite the fact that they lead refugeeized lives, the image of a village of migrant workers with a strong sense of self-esteem and solidarity may be another aspect of modernity of Shanghai of the 20th century that encircles “modern Shanghai.”</p></div>						
저 자	천 진 / 千 眞 / Cheon Jin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2.10.	심 사 일	2023.03.05.	게재확정일	2023.03.20.